

[서 평]

## 集約的 共同作業의 한 典型

鄭 鍾 休  
(全南大法大助教授·民法)

### ①

高麗大學校 開校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近代西歐學問의 受容과 普專」이 간행되었다. 「보성전문학교의 法學·經商學敎育과 韓國의 近代化」연구위원회에 의하여 1984년 4월부터 着手된 공동연구의 결실로서 총 4백 65면에 이르는 대작이다. 「보전」그 자체가 곧 한국 近代史의 연구에 있어서 해명되어야 할 한 과제인 만큼, 본서는 우선 제목부터가 학자의 관심을 끌고도 남음이 있다.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본서는 첫째로 서구의 公·私法제도와 민주 사상의 전입이 한국의 국가체제와 公法秩序에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 둘째로 경제학과 상학의 敎育이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의 생성과 경영의 近代化에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의 결실이다. 한마디로 1905년부터 1910년경까지의 보전에서 이루어진 서구의 近代的 學問의 敎育이 近代化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명에 목적을 두고, 본서는 이를 위한 8편의 論文을 담고 있다.

### ②

먼저 게재순서에 따라 각 論文을 개관한 후 감상을 적기로 한다.

첫머리를 장식한 「普專 초창기의 근대민족주의사상(申一澈)은 設立者 李容翊의 교육국국이념에 따라 보전이 개교했음과 2대경영주 李鎭浩에 의해 민간주체의 민족사학의 성격이 선명해졌음을 분명히 한다. 초대 및 3대 교장 申海永의 「忠君愛國」型 국가주의사상이 근대적 國家愛의 國民倫理 형성에 미친 影響을 평가한다. 보전의 문명개화에 대한 態度는 전면적인 서구수용이 아니라 洋務論的 감각 속에서 유교도덕과 군주주의를 견지하면서 효용면에서 서구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것이었다.

「보성전문학교 設立의 역사와 배경」(姜萬吉)은 한말의 정치·경제상과 교육발달상을 살핀 후 보전이 근대적인 국가체제 및 사회체제를 수립해 나가는 데 必要한 인재양성기관에 그치지 않고 半식민지화로 치닫는 위기적 狀況에서 구국운동에 獻身할 고등교육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두편을 총론적 연구라 한다면 다음에 드는 것들은 각론에 해당한다 하겠다.

「西歐法 수용에 있어서 법학교육의 역사적 의의」(曹圭昌)는 19세기말 이래 서구법제도의 수용을 한·중·일 3국의 공통적인 문화현상의 일환으로 이해하려 한다. 그리하여 갑오개혁 이래의 일본에 의한 서구법의 시행은 타율적·형식적 繼受였음에 반해, 보전의 법학교육은 위한 민족자강을 위한 서구법의 주체적·실질적 계수이며, 舊한말의 난세에 전문적인 법률가를 양성한 고등교육기관이 일제나 구미의 후견 없이 우리 자신의 손으로 세워졌다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찾는다. 그러면서도 서구법의 수용이 전통적인 우리의 法감정과 단절되지 아니한 새로운 법문화의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실질은 日本法の 충실한 복사작업이었다는 아픈 지적도 본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최초로 법학이 성립되고 그 교육을 통하여 서구법의 이론적 수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보전의 큰 역사적 공헌이다.

「법학교육 및 연구논저에 관한 연구」(丘秉勳)는 공법분야에 한정된 실증적 탐구이다. 국가론, 인권론, 통치구조, 행정법 등의 항목을 살피건대, 보전의 법학교육의 초석을 이룬것은 근대적인 공법이론으로서,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교육주의, 국민의 기본적 사상의 보급과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전의 법학교육과 한국의 근대화」(金亨培)는 私法分野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考察이다. 이 논문은 근대사법학의 교육이 보전 설립 당시의 우리 사회에 대하여 어떤 계기와 可能性을 제공하였으며, 근대사법의 내재적 기본원리가 우리 사회에 자체적으로 生成·擴大되고 있던 실학사상과 어떤 潜在的 關聯이 있는지를 능력, 계약, 소유권, 상속, 상행위 등 사법상의 중요개념을 들어 살피고 있다. 그리하여 서구법의 중심사상인 인격의 평등과 사유재산제는 국력을 키워 外勢에 對備·對抗한다는 시각에서 교육되었고, 비록 이들 제도가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성숙되어 있던 실학사상에 의하여 큰 마찰없는 수용이 가능했음을 논증한다.

법학논문 3편이 끝나면 2편의 경제학관계 논문이 뒤를 잇는다.

「한국경제학의 시원에 관한 연구」(趙璣潛)는 서구경제학이 도입되기 이전의 한국사회에 나타난 근대적 경제사상을 고찰하고, 보전을 통하여 서구경제학이 도입·정착되는 경로를 살핀다.

「朝鮮王朝 말과 일제 전반기의 상업고등교육과 보성전문학교」(宋基澈)은 보전의 상업학을 교과목, 교사진, 저서, 논문 등을 통해 재조명한다.

마지막으로 「보성전문학교의 법학·경상학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李允榮)가 초창기 보전의 교과과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變遷되었는지를 다룬다. 학년별 교과과정, 강사명, 교재의 분량, 학기별 시간수에 관한 極히 상세한 연구로서, 당시의 다른 법학교육기관과의 비교를 시도한다.

### 3

한일합방이 되기까지 보전은 유일한 전문대학水準의 法律·經濟學의 교육기관이었고 서구학문 수용의 거의 유일한 채널이었다. 그러므로 보전을 중심으로 한 서구 근대학문의 수용에 관한 연구는 보전의 후신인 고려대학교의 학내적 사항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며 학계 전체의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은 우리나라의 近代法史에 관심을

갖는 한 학도의 소박한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첫째 본서는 한국 근대법사의 정립에 있어서 그 자체 해명을 요하는「보전」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다룬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서는 하나의 시각 아래 이루어진 집약적 공동노작의 한 모범이 된다는 점이다. 法律學專門科와 理財學研究科로 개교된 보전에 관한 연구에서 본서가 理念史的 연구와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를 처음과 끝에 놓고 중간부분을 법학과 경상학분야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企劃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희귀한 문헌들을 다수 인용한 것도 놀랍거니와, 희귀문헌 독점상태에 빠지기 쉬운 학계에서 같은 문헌이 본서 전체에 두루 인용되고 있음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셋째, 비교연구의 충실을 들어야겠다. 예컨대 「보전의 법학교육과 한국의 근대화」에서는 근대사법의 기본원리 이전에 「이조시대의 전통적 법사상」이 등장하고, 마지막의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전의 법학교육이 「갑오개혁 이후 1904년까지의 법학교육」 및 「1905년 전문학교의 설립과 법학교육」과 비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와 서구 근대학문의 대비, 보전과 여타 근대적 교육기관과의 비교는 본서 전체에 걸쳐 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네째, 본서는 학계에 중요한 논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근자에 들어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관한 연구가 각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법학분야에서도 80년대에 들어 다수의 크고 작은 업적이 등장하고 있는데, 본서의 간행으로 베일에 가려진 여러 부분에 대한 학문적 조명 시도가 한층 본격화되고 심화된 듯한 인상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법학교육기관인 법관양성소에 대한 평가처럼, 근대법사의 중요한 제도·사상에 관한 대립적인 평가가 본서의 간행으로 다수 생겨났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보전·고대적」이라는 부득이한 제약은 있으나, 법학관계 논문 3편만으로 보자면 각기 한국근대법사상의 중요한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세편 모두 인물중심적 성격을 탈피한 제도중심적인 연구라는 점도 학계를 위한 진일보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연구는 아직 초기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 미개척지가 많은 분야일수록 문헌의 과감한 공유, 학자들의 전담분야의 세밀화를 통한 심도 있는 연구, 전통과 근대의 비교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용이한 작업은 아니며 앞으로의 중요한 숙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서는 학계에 귀감의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더러는 오자가 눈에 띄어 내용상의 정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곳이 있고 게다가 비매품인 관계로 일반의 손에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손질을 거쳐 일반학술서로 재등장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高麗大出版部刊 신국판 4 백 65 면 비매품)